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음 7월 22일) 제16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도내 시군 축제 지역경제 살렸다

### 정부 '2016 문화관광축제' 최다 규모 선정 도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추진 등이 결실 관광객 입소문 타 지난해 1500억원 효과 얻어

정부의 '2016 문화관광축제'에 전북의 대표 축제가 최다 규모로 선정되면서 전북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1시군 1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 대표축제의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프로그램 차별성 및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 사업'은 대표축제의 차별성 및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대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문화관광축제 선정규모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전국 유일) 및 도비 차등지원(8억원/4개 등급) 등으로 얻은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김제지평선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등 3개가 선정된데 이어 이듬해인 2015년에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올해에는 '고창모양축제'가 가능성을 이어받아 유망축제로 첫 선정됐다.

이는 전국 43개 축제 중 12%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김제지평선축제는 4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무주반딧불축제는 4년 연속 최우수축제, 순창장류축제는 3년연속 우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2년연속 유망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9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인정한 만큼 관광객의 입소

문이 전국으로 확산돼 전북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4개 시군 대표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316만명으로 1,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군 대표축제 운영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7일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10월에는 고창모양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이 개최될 계획이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시군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축제 관광객을 위한 특색 있는 참여·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고심했다.

특히, 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자원봉사자 및 판매부스 운영자에 대한 친절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축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시군 대표축제의 내실화와 차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 매일 INDEX

4면 론리 플래닛 아시아 대표 명소에



2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전북, 전남,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송하진 전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및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성일종 예결위위원, 김상훈 정책위부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위원장,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주광덕 예결위간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권석창 예결위위원, 김중대 전남도당위원장.)

## '새만금사업 전담 특위' 새누리에 설치

### 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서... "사업 추진에 최선"

새만금사업을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새만금사업 전담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새누리당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권 SOC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예결위위원)과 김광림 정책위위원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위원, 환경노 광주시당위원장, 김중대 전남도당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역공

약사업 추진, 예타대상 사업 통과 등 지역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 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이므로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현 당대표는 "1988년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며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은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호남이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라거나 낙후된 곳으로 불리지 않도록 호남에서 시작된 뜻 깊은 정치 변혁에 상응한, 집권당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민심과 현안을 보듬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전주 을)은 "이정현 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별 현역의원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책 협의회가 실 효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위원장은 "추경 통과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호남의 선도적 정치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호남권 속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에서 시작된 바람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 이석수 "한달 전 박근혜 1억 '사기' 혐의로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옥영재단 이사장 등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날 21일 이 특감관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수사중이다. 박 대통령 친인척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 특감이 고발한 사건인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2016년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상임이사 최동식 | 이사 김규태, 김남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송환용, 신동선, 유석용, 이성광, 주동현, 한의성 | 사외이사 김병윤, 심병연 | 감사 조미희, 유용주

NH 농협 | 전주농협연합회